

한·일 근대문화 속의 <가정>*

— 1910년대 가정소설, 가정극,
가정박람회를 중심으로 —

홍 선 영**

目 次

1. 머리말
 2. 일본 <가정소설>의 변안
 3. 가정을 ‘신발명’하다
 4. 가정박람회 — ‘민중교화의 장치’
 5. 맺음말
-

1. 머리말

1910년대를 전후로 한국에서 새로이 떠오른 화두는 ‘가정’이다. 이 시기 일본소설의 변안이 붓물처럼 등장하는 가운데 신문의 연재 소설란에는 가정소설, 극장에서는 가정극(신파극), 신문사가 주최하는 가정박람회 등 ‘가정’이라는 새로운 이념이 1910년대의 한국에 범람하게 된다. 아울러 신문과 극장, 박람회라는 ‘근대적 장치’가 겨냥한 대상은 이전의 시대에 사회적으로 소외당했던 여성독자와 여성관객이었다.

이 시대에 왜 ‘가정’인가. 이념은 시대를 앞서가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은 오히려 전통적인 세계에 머무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때, 가족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은 가장 전통성을 대표하는 단위이다. 이러한 공간을 재편하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급격히 변화시키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 것이 가정소설, 가정극, 가정박람회였다. 그런데 신문, 잡지, 서적 등 활자 저널리즘과 연극, 문학 중 ‘통속성’에 의거한 많은 부분은 ‘문화’에 의한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편에도, 그것에 저항하려는 편에도 이데올로기와 사상을 담고자 하는 무기이다. 과연 1910년대의 ‘가정’을 중심으로 형성된 근대적 공간이 독자나 관객들에게 제공하고자 했던 새로운 지평은 무엇이었을까? 또한 거기에는 식민지적 문화지형을 형성하려는 어떠한 의도가 담겨져 있었을까?

본 연구는 1910년대 한국에서 ‘가정’이라는 새로운 담론을 둘러싸고 형성된 신문, 극장, 박람회와

* 이 논문은 2003년도 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 연구자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KRF-2003_073-AM-1002)

*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같은 공간들이 독자, 관객들에게 일상적인 신체감각을 자극하며 제공하고자 했던 균일한 의식과 문화 형성의 과정을 밝힐 것이다. 이는 현대의 우리들에게 너무나 자명한 것처럼 보이는 ‘가정’이라는 것조차,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박람회’라는 이름처럼 박람회를 보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신발명’된 근대 문화의 산물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며, 또한 ‘가정’을 우리들의 신체에 공통감각¹⁾으로 각인시키는 과정임을 밝히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우리들 앞에 제기된 문화와 관련된 수많은 중요한 문제들, 즉, 신체, 아이덴티티, 언어, 삶이 함께 하는 시간과 공간, 제도, 의식 등의 제 문제는 모두 공통감각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10년대의 식민지적 상황에서 짜여진 ‘커다란’ 문화 지형의 입체적인 모습을 밝혀내고 ‘작은’ 문화 지형을 새롭게 읽어냄을 통해 식민지적 문화지형을 ‘거꾸로’ 읽고 다시 ‘짜야 하는 작업의 첫걸음으로 삼고자 한다.

2. 일본 <가정소설>의 번안

일본에서 ‘가정소설’은 메이지 시대 중기, 즉 189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에 걸쳐 등장했는데, 일반적으로 일본의 가정소설은 “일본 가정의 읽을거리, 가정에서 읽힐 만한 소설”, 혹은 “가정생활에서 취재한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그리고 가정소설의 특징적인 조건으로 “도덕성에서 건전할 것. 정서적일 것. 도덕의 승리라는 구원의 결말일 것”²⁾이라는 점이 덧붙여지는데 ‘도덕의 승리’ 혹은 ‘행복한 결말’을 추구하게 된 데는 그만한 배경이 있었다. 청일전쟁(1895년) 이후 다수 등장했던 사회의 암흑면을 주로 소재로 삼았던 ‘관념소설(觀念小說)’ 혹은 ‘심각소설(深刻小説)’에 대항해서 일어난 것이 가정소설 등장의 배경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 가정소설은 ‘암흑소설’에 반대되는 의미에서 ‘광명소설(光明小説)’이라 불리기도 한다³⁾. 가정소설의 이러한 건전함과 도덕의 승리라는 측면은 ‘독자의식의 과잉’, 즉 지나치게 독자 추종적인 측면과 함께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⁴⁾. 이러한 연유로 일본문학사에서 가정소설은 명확한 장르설정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또한 어떠한 명쾌한 규정이나 정의를 내리기에 애매한 존재임도 사실이다⁵⁾. 다만, 메이지(1868~1912)와 다

1) 中村雄二郎『共通感覺論』岩波書店, 2000년

2) 加藤武雄『家庭小説研究』『日本文學講座第一四卷』1934

3) 이 시기의 대표적인 가정소설에는 德富蘆花『不如歸』, 尾崎紅葉『金色夜叉』(1897~1902년 『讀賣新聞』연재), 菊池幽芳『己が罪』(1899~1900년 『大阪毎日新聞』연재), 中村春雨『無花果』(1901년 『大阪毎日新聞』연재), 田口掬汀『伯爵夫人』『女夫波』, 柳川春葉『生きぬ仲』등이 있다. 이 논문에서 거론되는 소설들이 ‘가정’의 문제를 소재로 했거나, ‘가정’의 독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동시대 즉 1900년대 전후 소위 ‘가정소설’이라 불릴 만한 작품들이 다수 등장한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가정소설’로 부르기로 한다.

4) 片山天弦『自己の爲めの文學』(『東京二六新聞』1908년1월6일)

5) 眞銅正宏『家庭小説というジャンル—菊池幽芳『己が罪』』『ベストセラーのゆくえ』(翰林書房、2000년) p.115~116 여기에서 신도씨는 ‘가정소설’을 다른 소설과 상대적인 것으로 할 만큼 확고한 평가기준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가정소설’과 ‘통속소설’의 관계 역시 애매한데, ‘가정소설’이 ‘통속소설’의 한 분야인양 수용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필자는 신도씨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소설’이라 칭하는 것은 동시대의 문화현상으로서 ‘가정소설’을 파악하고자 함이다. 또한 이들과 ‘통속성’을 연관해서 설명하는 것 역시 그러한 의미에서 유의미하다고 본다.

이소(1912~1925) 시대에 이르기까지 특히, 신문연재소설 가정극 신파극 등 다양한 미디어와 결합한 이들 가정소설은 일본에서 ‘가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기능을 했다⁶⁾.

한편, 1910년대에 접어들면 한국에는 일본소설의 번안출판이 왕성하게 나타나는데 이 중 이미 잘 알려진 대표적인 작품들을 꼽으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이미 언급했듯이 이들은 ‘가정소설’이라는 특징을 띠게 된다⁷⁾.

와타나베 가테이(渡辺霞亭)	『소후렌(想夫憐)』(『讀賣新聞』1903년 연재)
번안 이상협	『재봉춘(再逢春)』(동양서원 1912년)
도쿠토미 로카(徳富蘆花)	『호토토기스(不如歸)』(『國民新聞』연재)
번안 선우일(鮮宇日)	『두견성(杜鵑聲)』(1912년)
번안 김우진(金宇鎭)	『유화우(榴花雨)』(1912년)
기쿠치 유희(菊池幽芳)	『나의 죄(己か罪)』(『大阪毎日新聞』1899년~1900년 연재)
번안 조중환	『쌍옥루(雙玉淚)』(『매일신보』1912년 연재)
오사키 고요(尾崎紅葉)	『곤지키야사(金色夜叉)』(『讀賣新聞』1897~1902년 연재)
번안 조중환	『장한몽(長恨夢)』(『매일신보』1913년 연재)

1910년대 한국에서 일본소설의 번안은 당시 유일한 한글신문이었던 『매일신보』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일본소설과 일본연극을 번안 소개하고 그것을 한국의 독자, 관객에게 제공한 번역자, 연극인들은 『매일신보』의 문예란, 소설란 등을 담당한 기자들이었다. 1912년에 매일신보사에 입사한 이상협은 와타나베 가테이(渡辺霞亭)『소후렌(想夫憐)』(1903년)을 번안한 『재봉춘(再逢春)』(1912년)뿐만 아니라, 구로이와 루이코(黒岩涙香)『버려진 작은 배(捨小舟)』를 번안한 『정부원(貞婦怨)』을 『매일신보』 연재했으며, 1910년 이전의 『대한매일신보』 시절부터 이 신문사에 있었던 선우일도 도쿠토미 로카(徳富蘆花)『호토토기스(不如歸)』를 번안한 『두견성(杜鵑聲)』(1912년)을 거의 같은 시기에 출판했다. 조중환은 조일계라는 필명으로 1912년 기쿠치 유희(菊池幽芳)의 신문연재소설 『나의 죄(己か罪)』를 한국어로 번안한 『쌍옥루(雙玉淚)』(1912년 7월 17일~1913년 2월 4일) 역시 이 신문에 연재했고 이어 오사키 고요(尾崎紅葉)『곤지키야사(金色夜叉)』를 번안한 『장한몽(長恨夢)』을 연재소설란을 위해 집필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는 1912년 윤백남과 함께 극단 ‘문수성’ 설립에 참가한 멤버이며, 1910년대 신연극운동에 참가하여 자신이 번안한 소설들을 신파극으로 공연하고 직접 연극에 출연하기도 한 인물이다. 1915년 ‘신문총람’에 의하면, 당시 선우일이 매일신보의 편집장, 조중환은 경파주임(사회면), 이상협은 난파주임(문예면)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공통점은 경성외국어학교 일본어과 출신이거나 일본유학경험자로 일본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이들은 『매일신보』의 기자로 재직하면서 신문의 문예란 등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신문연재소설의 작가이기도 했다. 그리고 창작소설 이외의 많은 부분이 일본어소설의 번안이었다는 점, 1910년대 신연극 운동에

6) 무타 가즈에 「가족·성과 여성의 양의성」 『동아시아 근대성과 성의 정치학』 한국여성연구원 편, 푸른사상, 2002년, p.127~p.143

7) 1910년대의 한국에 나타난 일본소설의 번안에서 가장 먼저 번안된 소설은 야노류케이(矢野龍溪)『케이코쿠미담(經國美談)』(1883년)의 번안 역자미상『경국미담(經國美談)』(1904년)과 현공염『경국미담(經國美談)』(1908년), 그리고 스에히로토타초(廣末鐵腸)『셋쥬바이(雪中梅)』(1886년)의 번안 구연학『설중매(雪中梅)』(1908년)과 같은 정치소설이다. 이러한 번안소설의 성격이 변화한 배경으로 1910년을 전후한 시기의 출판검열의 강화와 잇달은 발매금지조치 등 언론출판의 탄압적인 상황이 주요인으로 지적되어 있다.

참가했고 일본신과극의 번안을 담당하기도 했다 라는 점에서 1910년대 일본문화의 수용에 『매일신보』의 역할은 지대했다. 이상과 같이 메이지 시대 일본의 가정소설이 한국에서 수용되는 과정에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신문저널리즘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

당시 『매일신보』의 연재 소설란은 순한글체로 쓰여졌으며, 그것은 새롭게 등장한 ‘識者’ 즉,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여성독자들을 위해 개척한 분야였다. 가정문제를 소재로 하여 금전과 애정(『곤지키야사』와 『장한몽』등), 고부간의 갈등과 부부애(『호토토기스』와 『두견성』, 『소후렌』과 『재봉춘』), 여성의 헌신과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며 고난을 이겨내는 사랑이야기(『나의 죄』와 『쌍옥루』), 여성의 숙명과 사랑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이들 가정소설은 건전한 ‘도덕’의 승리와 인생의 ‘광명’, 행복한 결말을 보여줌으로서 폭넓은 독자의 지지를 얻었다. 그리하여 1900년대 전후의 일본에서도 가정소설들은 도시 중산계급과 청춘남녀뿐만 아니라 계층을 초월한 인기를 얻게 되는데 그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이 신문저널리즘이었다⁸⁾. 뿐만 아니라 가정소설은 신문, 연극이라는 미디어와 결합하여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중산계급의 여성을 대상으로 독자층을 확대하여, 이제 ‘가정’이라는 개념은 일반 가정에 파급되었는데 그 가장 효과적인 기능을 한 것이 가정소설이다.

『호토토기스』의 작가 도쿠토미 로카도 자신의 소설에 대해서 “불건전함과는 단호히 선을 긋고 가정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堅く不健全を絶ちて家庭にも入り得べき)”이라고 언급하고 있듯이, 출판 당시부터 『호토토기스』는 ‘가정의 읽을 거리’로서 그 성격을 표방하고 있었으며 와타나베 가테이 渡辺霞亭) 『소후렌(想夫憐)』을 번안한 『재봉춘』은 ‘가명소설’이라는 소재목을 달아놓기도 했다. 한국에 수용된 가정소설 가운데, 로카(蘆花)의 『호토토기스』와 한국의 번안소설⁹⁾을 예로 들어, 동시대의 주요 이슈인 ‘가정’이라는 소재가 각각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이 두 소설은 모두 가문(家門)과 대 잇기를 우선시하는 전통적 가족제도, 구세대의 사상과 대립하고 갈등하는 젊은 부부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것이다. 『호토토기스』는 전반부에 나미코와 시게코라는 두 여성이 가정 경영을 둘러싸고 의견 대립하는 부분이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다. 나미코가 여학교 시절의 동창회에서 오간 대화를 전해듣는 장면에서 ‘부모 자식간의 별거론’이라는 일본의 전통적인 풍속과는 동떨어진 새로운 가정 경영론이 등장하게 되는데¹⁰⁾, 여기서 나미코는 이를 “국풍(國風)”에 맞지 않는 사상이라 여긴다. 반면, 시게코는 “부모자식간 별거론”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시게코(繁子)¹¹⁾라는 여성은 영국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여성으로 그녀의 생활습관은 유럽의 풍속 습관에 배운 “서양풍”¹²⁾

8) 金子明雄「『家庭小説』と読むことの帝國」(『メディア・表象・イデオロギー—明治三〇年代の文化究』1997年、小澤書店) p.131 ~p.157

9) 로카(蘆花)의 『호토토기스』가 한국에 소개된 것은, 1912년8월, 도쿄케이세이사(東京警醒社)와 서울의 동양서원(東洋書院)에서 동시에 낸 이 한국어역 『불여귀』를 통해서 일 것이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서울에서 출판된 두 종류의 신소설이 있는데, 하나는 선우일(鮮宇日)의 『두견성(杜鵑聲)』(경성보급서관(京城普及書館) 상권 1912년 2월, 하권 1912년9월)이고 또 하나가 김우진(金宇鎭)의 『유화우(榴花雨)』(상하권 동양서원 1912년 9월)이다. 이 두 소설 로카 『호토토기스』의 민유사(民友社)출판(1900년)을 원작으로 번안 혹은 개작한 소설이다.

10) 其れから親子別居論が始まつてね、北小路さんは自分が些も家政が出来ないに、姑が大變やさしくするものだから同居に限るつて云ふし、大久保さんはまた姑があましやだから別居論の優將だし、其は可笑しいの。(p.294)

11) 그녀의 모델로 알려져 있는 실제인물, 야마카와 스테마츠(山川捨松)는 아이즈 번 마츠히라가의 가로(家老)인 야마카와 나오에의 막내딸이며, 그녀는 메이지 4년(1871년) 건구미 특명전권대사 오오쿠라(岩倉具視) 일행과 함께 해외유학을 한 일본 최초의 여자유학생 중 한 사람이다. 당시 12살이던 야마카와 스테마츠는 이후 10년 간 미국에 유학하고 대학을 최우수생으로 졸업하고 귀국했다고 한다. 형제에 후에 동경제국대학의 총장이었던 야마카와 겐지로가 있다. 『일본근대문학대계9 徳富蘆花集』p.482 보주16

이다. 남편에 대한 태도에서도 역시 전통적인 도덕을 따르지 않고 대등한 인간관계를 요구하는 근대적인 입장에서 있다¹³⁾. 이 소설이 발표된 메이지 중기 일본의 일반 여성들에 비하면 상당한 정도의 근대적인 모럴을 지닌 여성인 셈이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나미코의 가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시게코의 “서양풍(洋風)”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으며 자신은 “고풍(古風)”의 일가를 꾸려 나가리라 생각하고 있다¹⁴⁾.

(나미코는) 우리의 국풍(國風)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 계모가 자신있게 말하던 부모자식간의 별거론이 혹시 바른 이치는 아닌가하고 의심해 본 적도 있지만, 이일 때문에라도 나미코는 내심 초심을 잃지 않겠노라 마음에 새긴다(『호토토기스』)

『호토토기스』에서 두 여성의 가정경영을 둘러싼 서양풍의 사고방식과 일본풍(國風)의 사고방식은 충돌을 보이며 대립하지만, 소설의 전개방향은 어디까지나 “국풍”을 주장하는 나미코의 입장을 옹호하는 편에서 있다.

나미코는 친정에 있을 때부터 굳이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계모(시게코)가 만사를 서양풍으로 해 치우는 것이 못마땅하여 자신은 일가(一家)의 범절을 고풍(古風)의 분위기로 하고자..¹⁵⁾ (『호토토기스』)

혜경은 친정에 있을 때부터 입으로 말은 안이 하지 않는 속으로 는 계모가 서양풍습에 린이 박인 것을 항상 불쾌히 녀여 나가 살림을 주장 하는 이상에는 서양풍습과 동양풍습을 절충 해야, 한, 가뎡를 신발명 히리라 하는 상이다(『두견성(杜鵑聲)』)

그런데 번안소설에서는 원작의 “고풍(古風)”의 가정 대신에 “서양풍습과 동양풍습을 절충하여 라는 새로운 논리가 나타난다. 『호토토기스』에서 가정경영을 둘러싼 서양풍과 일본풍(國風)의 충돌이 결국 “국풍”을 옹호하는 편에서 있는 것에 반해 번안에서는 “가뎡를 신발명”하겠다고 한다. 1900년대에서 1910년대의 한·일양국에서 ‘가정 을 둘러싼 인식을 살펴보고 한국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가뎡을 신발명”하였는가 라는 문제를 살펴보자.

3. <가정>을 ‘신발명’하다

일본에서 ‘가정’이라는 용어는 1870년대(메이지시대 초기)부터 쓰여지기 시작하여¹⁶⁾ 일반적으로

12) ヲヨーロッパの風俗習慣にならったというかぎりでの近代的な。(注21 p.232)

13) 夫唱婦隨という古い道徳によらず、對等の人間關係を前提とする近代的な立場に立っていること。(注24 p.232)

14) 曾て我國風に適はずと思ひし繼母が得意の親子別居論の或は眞理にあらざるやを疑ふこともありしが、之が爲めに翻つて浪子は初心を破らじと窺かに心に帶せるなり。(p.294)

15) 浪子は實家にありける頃より、口にはいねどひそかにその繼母のよろず洋風にさばさばとせるをあきたらず思ひて、一家の作法の上にはおのずから一種古風の味を有せるなりき。父中將の教へを受くるが上に、おのずから家政に興味をもてる浪子は、……。 (『호토토기스(不如歸)』三の二)

현재와 같은 의미로 정착된 것은 1900년 이후의 일로 알려진다. 고지마 초수이(小島鳥水)가 '확산되는 홈'(『手紙雜誌』1904년)이라는 글에서 “가정이라는 당시 특히 유행하는 신조어는 처음에 누군가가 영어의 홈(home)을 번역한 것”¹⁷⁾이라는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도 ‘가정’은 ‘home’의 번역어로 출현한 근대어였다. 그리고 1890년대에서 1900년대에는 각종 저널리즘과 소설, 연극 등의 미디어를 통해 가정을 주제로 한 다양한 논의가 등장한다¹⁸⁾. 예를 들어, 『太陽』 『中央公論』 『國民之友』와 같은 대표적인 종합잡지들이 이 시기에 앞다투어 ‘가정’ 혹은 ‘홈(hom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모색하고 소개하는 기사를 실고 있었다. 한편, 19세기의 영미에서도 영국의 The Englishwoman’s Domestic Magazine(1852), 미국의 Ladie’s Home Journal (1883) 등 역시 ‘Domestic Magazine’ 혹은 ‘Home Journal’ 등이 여성독자를 확보하고 있었다¹⁹⁾.

일본 가정잡지의 ‘가정’론은 우선 서구의 가정교육론을 번역, 소개하는 것에서 시작되었고, ‘가정’이라는 용어를 전면으로 내건 다양한 잡지들이 생겨나게 된다. 『매일신보』의 실질적인 책임자이기도 했던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의 『家庭雜誌』(1892~1898년), 『日本及家庭』, 『家庭』(1900년), 메이지기의 사회주의자 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의 『家庭雜誌』(1902년9월~1908년8월), 『家庭之友』(1903~) 등이 모두 190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일본에서 발행된 대표적인 가정잡지들이다. 특히 도쿠토미 소호가 주관하는 『國民之友』 및 자매지였던 『家庭雜誌』는 ‘가정’과 ‘가족’에 관한 논설이 자주 실리는 잡지였으며 이들 잡지는 당시의 가부장적 가족제도 ‘이에(家)’에 대신하는 것으로서 기독교적인 개인의 집합체로서 ‘가정’이라는 관념을 확산시켜 갔다.

일본에서 ‘가정’이라는 용어는 ‘연애’라는 말과 함께 신성시되었고 여자교육과 함께 부인들이 활자를 읽기 시작한 결과 ‘가정소설’에 등장하는 내용들도 ‘이에(家)’에서 ‘개인’으로 결혼제도의 주체가 바뀌어야함을 주장하며 메이지 시대 중기이후 일본에서 ‘가정’은 새로이 부각되는 사회적 관심사였다²⁰⁾. 일본에서 ‘가정관’의 전환이라는 흐름을 만들어낸 배경의 하나는 대체로 1902년 전후의 일인데²¹⁾, 이 시기의 ‘가정’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종교적 혹은 교육적인 견지에서 주로 다루어졌고 일본의 현실과는 일정 거리가 있는 ‘이상적인’ 모습의 가정이 주로 거론되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가정’론은 기존의 전통적인 ‘이에(家)’와는 때로는 반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소설 『호토토기스』). 하지만 기독교적 경향의 지식인들이 이상적인 가정을 주장했지만 근대국가를 형성하는 최소단위로서 ‘가정’을 위치 지은 점에서 결국 ‘가정’은 근대국가의 말단조직으로서 부각될 수 밖에 없었다²²⁾. 이 점이 1890년대에서 1900년대에 걸쳐 급부상한 일본 ‘가정소설’의 기본적인 성격을 결정짓

16) 新ニ教方ヲ創メ是ヲ家庭ニ試ルニ (『新聞雜誌』23號, 1871年 12月)

17) 家庭と言ふ当節殊に流行の新語は、初め誰かが英語のホームを譯したのなりとか承はり候へ共「廣大なるホーム」 『手紙雜誌』1904年11月

18) 大八木幸子 『實用家庭看護法』(目黒書店, 1906), 石原喜久太郎 『(新編)家庭衛生』(博文館, 1908), 松浦政泰 『歌米名士の家庭』(女學叢書發行所, 1903), 家庭教育會 『(教育資料)家庭講話』(郁文舎 1907) 등, 가정에 관련된 서적들도 이 시기에 무수히 발매되고 있었다.

19) 여성의 정치·사회적 참여가 기대되었던 18세기 영국에서 최초의 여성잡지인 『더 레이디즈 매거진(The Lady’s Magazie, 1770)』이 창간되어 문예와 패션 기사를 실었다. 그 뒤 『타벨르 아상블레(La Belle Assemble, 1806)』, 『영국여성의 가정잡지(The Englishwoman’s Domestic Magazine, 1852)』 즉, 여성잡지산업이 크게 확대되어 대중독자의 욕구를 충족시켰고, 미국에서도 화려한 삽화로 인기를 끌었던 『고디즈 레이디즈 북(Godey’s Lady’s Book, 1830~98)』을 비롯하여 발행부수가 40만부에 이른 『레이디즈 홈 저널(Ladie’s Home Journal, 1883)』과 『맥콜스 매거진(1897)』 등이 차례로 발간되어 여성잡지로서 자리를 굳혔다.

20) 무타 가즈에 「가족·성과 여성의 양의성」 『동아시아 근대성과 성의 정치학』 한국여성연구원 편, 푸른사상, 2002년 p.127 ~p.143

21) 眞銅正宏 『家庭小説というジャンル—菊地幽芳『己か罪』』 『ベストセラーのゆくえ』 翰林書房, 2000년 p.117

는 것이며 나아가 ‘가정소설’의 식민지로의 이동을 견인하는 요인이었다.

한편, 한국에서 ‘가정’에 관한 담론은 1906년 경 최초의 『가정잡지』를 소개하는 글²³⁾에서 ‘부녀사회의 교육과 주거생활, 식생활에서의 ‘위생청결을 강조하는 글²⁴⁾, ‘가정위생(家庭衛生)²⁵⁾, ‘가정교육(家庭教育)²⁶⁾ 등에서 ‘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초기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시의 글에서 ‘가정’이라는 말의 연원을 살펴보면, 공자(孔子)가 딸(庭)에서 아들 백어(白漁)에게 “가례(家禮)”를 읽었느냐 라는 가르침을 ‘정훈(庭訓)’이라 하여 동양의 유교에서 ‘가정’이라는 말이 유래하지만, 일반적으로 쓰여지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라고 밝히고 있다. 동양의 가정은 ‘예기(禮記)’에서 본 받은 것인데 최근에 유럽의 문물을 접하여 경솔하게 가정을 논하는 것을 비판하기도 한다²⁷⁾.

‘가정’ 관련 저널리즘으로 1913년에 창간된 『우리의 가명』이라는 잡지에서는 가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²⁸⁾. “가명은무엇이뇨 이는 부모형제자매가모여서숙식을혼가지로 혼는단테이라”²⁹⁾. 즉, 당시의 ‘가정’이 반드시 ‘부부’본위의 서양적인 가정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이 시기의 논설들은 ‘가정’을 사회의 최소단위인 ‘단체’로서 주목하여 사회적인 효용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강한데,

나라가잇스면 사회(社會)가잇고 사회가잇스면 가명(家庭)이잇셔요 밧구어말하면 가명이모혀서 사회가되고사회가모혀서 나라가되는것이올시다 그러흐고로도혼 가명우에 도혼사회가잇고 도혼사회우에 도

22) 앞의 인용, p.117 ~ p.118

23) 『황성신문』1906년12월18일 사설

24) 이 시기의 ‘가정잡지’라는 명칭의 잡지는 두 종류가 있었다. 하나는 대한제국 말기에 발간된 순한글 잡지로 월간지로서 잡지의 효시이며 당시의 유일한 가정잡지였다고 한다. 1906년 6~8월까지 《가명잡지》라는 표제로서 상동청년학원(尙洞靑年學院)내의 가정잡지사(가정잡지)에서 유일선(柳一宣)이 발행하였다. 여성 취향의 기사와 육아·요리·위생 등을 다루었으며 가정의 미담(美談)과 위인의 가정을 소개하여 자녀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산술(算術)·이과(理科)·한글 등의 교육을 위해 <백과강화>라는 고정란을 두고 신지식보급에 노력하였다. 통권 3호로 폐간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잡지는 역시 대한제국 말기에 신채호(申采浩)가 발간한 계몽잡지이다. 1907년 7월 25일부터 1908년 8월 25일까지 발행되었다. 가정의 개혁을 내걸고 신문명 수용을 통해 실력을 양성함으로써 나라의 독립과 안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단순한 계몽·교양뿐만 아니라 정치·경제·과학·사회 등의 실력을 쌓는 데에도 중심을 두어 가정 단위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통권 7호로 폐간되었다.

25) 衛生課는 家庭衛生을 注意 하야 『만세보』1906년 8월 3일

26) 『대한매일신보』1906년 8월 1일

27) 가명이라는말의시작된연구 서양가명과동양가명의차이 (중략) 서양에서는 가명을엇더혼의미로 쓰는지, 아지못흐나 동양에서가명이라는 문즈를 쓰게된 것은 최근의일이요 그연원을 차져보건디 는 공즈 시대에시작된자이라 / 공즈○ 홀로 / 그○ 들백어(白漁)가 사들압홀쥬창 호야지나 는 지라공즈 서는백어를불너 네가례기를 읽엇더냐 호섯스니 즉부 즈사이에 쓸명자를쓰게된 것은 일로부터이오 친교를 명훈(庭訓)이라 호게되얏더라 공즈시대에 눈부 즈간의 레법이엄 중 호얏스며 그후 동양의유교로니려오는가명에서는부모분위가되고 쓰가명의모든일은 더례기(禮記)에 본밧은것이니 겨오구라파의쥬빅을 밧보고 공연히가명을의론혼은 경솔하다이르겟도다

28) 한국 여성잡지의 시초는 1906년 창간된 《가명잡지(家庭雜誌)》라고 할 수 있는데, 순한글체로 간행되어 여성계몽에 앞장섰으며, 그 뒤 《여자기남(女子指南, 1908)》 《여자시론(女子時論, 1920)》 《신여자(新女子, 1920)》 등이 나와 여성교육, 남녀평등, 가정변혁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루었다. 1922년 개벽사(開闢社)에서 본격 여성잡지인 《부인(婦人)》을 창간하였다가 다음해 《신여성(新女性)》으로 제목을 바꾸어 발간하였으며, 그 뒤 《부녀지광(婦女之光, 1924)》 《여성지우(女性之友, 1929)》 《가정공론(家庭公論, 1931)》 등이 간행되었다. 개벽사의 《신여성》과 동아일보사의 《신가정(新家庭, 1933)》, 조선일보사의 《여성(女性, 1936)》을 광복 이전 3대 여성지로 꼽는다.

29) 가명의규범(家庭의 規範) 가명의쥬인(奇書) SOS嬢 p.8

혼국가가 잇슬것이 올시다(『우리의 가명』(家庭)권두(卷頭)에쓴말)

라고 했다. 이는 당시의 논설들이 국가—사회—가정이라는 연결고리를 중시하면서 이를 위한 가정계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서 가정소설에서 보여지는 서양과 동양의 절충이라는 발상이나 일본식 가정, 서양식 가정, 그리고 조선식 가정을 각각 어떻게 분별하고 있었을까.

동양풍속의가명과 서양풍속가명의 ▲다른점을들건디 동양의가명은 부모본위요 서양의가명은부부분위라고도말호겠고 또동양은 례법, 의리, 가풍, 명예, 부자, 정혼을 존중호나 서양에서는 부부의정리, 흥미, 편리, 경제 등을위주호니 동양가명과서양가명은 근본적으로 다른것이라 이신구의서로다른점은 극히/ 신중히 연구호지안이호면 뜻밖게일이 성길 넘려가잇고 또서양에서는 결혼만호면 즉시분호를호나 동양에서는되지못 홀일이라 (『매일신보』1915년 9월 22일 3면 조중웅)

라고 하여, 우선 동양풍속의 가정은 ‘부모본위’이며 서양풍속의 가정은 ‘부부분위’이고, 동양은 “예법, 의리, 가풍, 명예, 부자, 정혼”을 존중하는 반면 서양의 가정은 “부부간의 애정, “흥미 편리 경제”등을 중시한다고 그 차이를 파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양에서 결혼 후에 분가를 하는 풍습 등 서양적인 가정풍속을 받아들이는데 ‘신중히’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 번안소설에서 살펴본 동서양의 절충으로 가정을 ‘신발명’하고자 했던 인식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조선의 부부관계에 대한 인식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조선의 남녀관계는 상당히 엄숙하나 여자가 남자를 제어하는 일이 많고 특히 양반가(중류이상)에서는 부인에게 살림을 관장하고 처리하는 권한이 많음을 지적하는 예도 보인다³⁰⁾.

우리조선으로말호겠것호면남녀사이가심히엄숙호중 녀자는항상남자를제어호는일이만호시며 특별이중류이상가명에서는부인이 살림을주장호야범 스를처리 호는것이며(『가명의규범(家庭의 規範)』)

그 이유를 남녀분별이 엄격한 점 때문에 여성을 신성시하는 사상이 발달했으며 조선의 여성도 남성과 비교해서 “재성(才性)”이 다를 바 없기에 조선여성의 지위가 그다지 낙후되어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주장이다³¹⁾.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신발명’을 위하여 현재의 조선가정을 개량(改良)³²⁾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가정의 규범』³³⁾ 『가정의 위생』 『부인의 직업』, 『목욕과 위생』³⁴⁾, 『여자의 진보와 시대의 요구하는 책임』, 『부인과 법률』³⁵⁾ 등에서 보여지듯 가정관련 저널리즘들은 임신과

30) 『우리의 가명』창간호 1913년 12월 p.8

31) 데일은조선은조고로남녀의분별이엄숙호야조금도남자와다를것이업는연고이라조선이 몇 년간호 동안을녀 조교육에 힘쓰지아니호였시되 오히려녀 조의지위가 그다지 스더러지 호아닐호것은엇지 조량 홀일이아아리오 (같은 책)

32) 『우리의 가명』(家庭)권두(卷頭)에쓴말

33) 『우리의가명』창간호(1913년 12월)

34) 『우리의 가명』6호(1914년)

출산에 관한 지식, 육아법, 영양학, 위생, 아동심리, 교육학을 배우는 여성의 모습을 폭넓게 소개하며 근대적 가정규범을 실천함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이 탄생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밖에도 「가명학강화(家庭學講話)」³⁶⁾, 「家庭의 讀物」³⁷⁾, 「조선가정의 개혁」³⁸⁾, 「원만한 가정」³⁹⁾, 「家庭要說」⁴⁰⁾, 「學校와 家庭의 連絡」⁴¹⁾ 등의 기사들이 이 시기의 신문, 잡지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근대적 가정에 필요한 규범과 지식을 제공하는 이들 잡지들은 가정과 여성에 대한 계몽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⁴²⁾, ‘아내’로서의 여성, ‘주부’로서의 여성, ‘양처현모’로서의 여성이라는 새로운 여성의 이미지를 부여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06년 경부터 191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신문과 잡지 등을 중심으로 ‘가정’에 관한 다양한 담론들이 형성되는 한편 ‘가정’의 모습을 허구의 세계이면서 현실이상으로 리얼하게 보여주는 소설과 연극이 동원된다. 가정소설과 가정극은 신문과 극장을 채우고 바야흐로 1910년대 중반에는 ‘가정’을 둘러싼 대중적인 인식의 확산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제 한국의 191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가정”이라는 주제가 신문, 잡지, 극장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던 문화 현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동시기에 열린 조선의 ‘가정박람회’에 주목하고자 한다.

4. 가정박람회 —“민중교화의 장치”

1915년에 열린 조선의 ‘가정박람회’는 매일신보기사에 의하면 1915년 9월 1일부터 9월 26일까지 보름간 개최되었다. 당시의 한국 내에 매일신보 이외에는 국문신문이 없었던 관계로 충분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지만, 이하 매일신보의 보도기사들을 중심으로 1915년 조선에서 열린 최초의 ‘가정박람회’의 일단을 살펴보자.

태평로에 위치한 매일신보사와 경성일보사의 건물 정문에 만국기가 게양되고 “사람의 눈을 황홀케 하”는 무수한 전기등(9월 20일 3면), 자동연주악기에 의한 서양음악을 배경으로 ‘가정박람회’라는 문자가 건물의 첨탑에 내걸리고 화려한 박람회장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레이드 화장품의 광고판이다⁴³⁾. “가정박람회”라는 현판이 붙어있는 박람회장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진⁴⁴⁾과 함께 실린 이 가정박람회의 소개내용⁴⁵⁾을 보면, 박람회는 다섯 개의 전시관으로 나뉘어 있었

35) 『우리의가명』9호(1914년)

36) 『新文界』신문사, 1913년 4월 p.68 ~p.71

37) 『매일신보』1917년 3월 16일

38) 『매일신보』1916년 12월 16일

39) 『매일신보』1917년 3월 17일

40) 『신문세계』1913년 2월

41) 『신문계』1915년 3월

42) 『우리의 가명』장간호. p.2

배성준 『우리의 가명 해제』에 의하면, 1913년 12월 15일 신문사(新文社)에서 창간한 여성 잡지. 1914년 11월 통권 제12호로 종간되었다. A5판 40면 내외. 순국문. 편집 겸 발행인은 죽내 녹지조(竹內錄之助). 신문사에서 발행하였다. 죽내녹지조는 『우리의 가명』 이외에도 『신문세계(新文世界)』, 『신문계(新文界)』를 발간하여 일본에서 들어온 근대문물을 소개하였다.

43) 『盛粧美觀家庭博指路』 『매일신보』1915년 9월 14일 3면

다. 일호관에는 “소아실” 즉 아동실이 전시되어 있는데, 열두 살 된 형과 이홉 살 된 누이가 이 “소아실”의 주인이다⁴⁶⁾. 인간이 구성하는 사회단위로서 ‘가정’에 주목했을 때, 역시 새롭게 떠오른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소아’였다. 아직 어린이 혹은 아동이라는 용어보다는 ‘^인희⁴⁷⁾’, 혹은 ‘소아’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었는데, 가정의 주요한 기능이면서 여성에게 부여된 절대적인 임무로 ‘육아’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 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조선의 ^인희업는법은 항상도치못 ^인야⁴⁸⁾” 박람회에서 아이업는 법을 보고 배웠다는 조선여성의 박람회 관람후기도 보인다.

일호관의 전시실에 배치된 아동을 위한 방이 ‘유희실’ ‘공부실’ ‘침실’로 나뉘어 있는데, 이는 어린이의 놀이와 학습, 휴식 등 육아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기능별로 분류되어 전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어린이를 위한 방밖에는 ‘명장의 초상화’가 붙어 있는데 이는 “아이의 마음을 길러주고”자하는 의도라고 한다⁴⁹⁾. 가정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어린이의 ‘심신’교육에 중요하며 교육 방식 역시 위인의 초상화를 ‘보여줌’을 통해 심신을 육성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박람회에서 제시된 가정 구성원들의 존재 방식을 보면 더욱 이색적인 ‘신발명’이다. 즉, 자녀와 부부,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공간이 각각의 존재 양식과 구성원의 성격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일호관에 전시된 것은 주부실⁵⁰⁾인데, 여성이 ‘주부’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그녀들의 공간으로 ‘부엌’과 ‘위생실’이라는 것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일호관에서 오호관에 이르는 각 전시실은 건물의 1층에서 3층까지 걸어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배치하고 있었고 야외에서는 정원과 어린이용 놀이기구, 요술거울 등의 유희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가정박람회를 찾아온 관람객들이 전시실에서 전시실로 공간을 이동하면서 ‘가정’을 체험하고 학습하며 탐험하는, 그곳은 마치 가정이라는 이름의 ‘테마파크’였다. 이러한 각각의 전시실에는 ‘등신대의 인형’ 즉, 마네킨들이 각 구성원들의 역할을 ‘실제로 제시’하여 그 기능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공중의 면전’에 살아있는 듯한 인형을 배열하고 진열하여 보여줌으로서 ‘관람’ 행위를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는 제공할 수 없는 감상을 일으킨다. 그리하여 가정의 개량과 함께 “^인희는더욱

44) 1915년 9월 12일 3면

45) 初日の 大盛況 大共進會의 開場

• 가정박람회 / 가명박람회 기회의첫날 / 한시간에수천명의입장

(전략) 우리가명박람회의문은 열니엿더라 본사압넙은마당에는 무수한사람이 모혀드렸스니젊은사람 로인 무인 남조 우산맞은사람 갖은사람 모조쓴사람가지각식의사람들이 그넙어나넙은 ▲마당에가득하게모였습 니다 (중략) 입장^인신제군들은 대대^인취미를가지고 각관을관람 ^인시는^인디 ^인호쇼^인오실압해 발을멈추어유리 ^인게진렬^인유희실, 공부실 침실등을 ^인제세^인히연구하며 ^인혹은^인음악실에서 ^인취주^인호는장쾌^인곡도에 귀를기우리며 ^인혹은^인이호관의 ^인주부^인실압해서서 그 ▲진렬을연구^인호고^인데삼호관에일으러서는 유명^인호 칠흙간의 부엌을 ^인제세 ^인히보고^인그묘묘히 리용^인호앗슴을 탄상^인호고 ^인또는^인특별진렬의 위 상실에 드러가지안이 ^인현면 ^인안이될여러가지 스 향을주의^인하며 ^인또는^인중류가명의 리상^인덕서지를보고 그한^인아쇼쇄^인호 장식과고상^인호고도 실제에필요^인호도록 비치 호 것을 칭찬^인하며 ^인또는^인중류가명의지실을 연구^인호기에 여넘이업고 ^인또는^인등신^인대의인형이아모리보아도 산 스 립갓다고 ▲^인신^인기^인호게녀이며 (중략) 오호관뜰의 조선집안방을보고 그□^인나이며 ^인또박^인람회뒤에^인명원에를 나가보면 별서소학교모조를 쓴^인호들이유동원목을탄다 여러 가지유희에 정신이업시조와 호는모양도볼만 호 더라 (1915년 9월 12일 3면)

46) 동경여자대학에서 출판 『매일신보』1915년 9월 15일 3면

47) 최초의 어린이 잡지 『소년』(1908년 11월)이 창간되고 『아이들보이』(1913년 9월)에서는 ‘소년’ ‘아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었다.

48) 「名流婦人의 觀覽」 『매일신보』1915년 9월 14일 3면

49) 『매일신보』1915년 9월 15일 3면

50) 전시실의 배치가 진행에 따라 때로는 변경되기도 한 듯하다. 예를 들어 9월 20일에는 일호관에 목욕탕, 주방, 주부실이 전시되었다. 『매일신보』 1915년 9월 20일자 3면

잘생육'될 것이며, 가정박람회는 '가정의 모형을 보여주고 '알기쉽게' 51) 전달하는 기능을 했다. 뿐만 아니라 화장품, 목욕용품, 부엌용품 등 화장품회사, 가스회사(日韓瓦斯會社)등이 출품한 상품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가정' 관련 상품의 광고가 박람회의 또 다른 목적이었다.

新家庭에 最히要用되고最히經濟되는瓦斯器具를羅列하였스니 第一은廚房用的瓦斯爐, 第二는 浴沐用的瓦斯風呂, 第三은 室內用的瓦斯煖爐及瓦斯燭臺等이라(「家庭의 模範을 作할 家庭博」)⁵²⁾

가정박람회는 새로운 가정생활의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새로운 소비생활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선전하는 장치이기도 했던 것이다. 한편, 가정박람회에는 조선의 주택 내부와 가족의 모습도 전시되고 있었다⁵³⁾. 조선의 상류가정을 진열한 오호관에는 방 세 칸이 마련되어 있고 그곳에 주인내외와 남매가 등장하는데 남자주인은 안석에 의지하여 신문을 읽고 있고 아들은 그 앞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며 부인은 딸과 함께 바느질을 하는 이들 네 가족의 정겨운 모습을 등신대의 마네킹으로 재현시켜내고 있었다.

그런데 박람회에 전시된 '가정'을 조선의 여성들은 어떻게 보았을까? 박람회 개최 기간의 중반에 접어든 9월19일의 한 조선여성의 관람후기를 보자

이설비는 대단히 필요하고 도훈줄로생각 합니다 옛것은 필요치안어하다 는것이안아라 는 생각에 는데일으히기르는 법이 필요훈줄로스 각합니다나 는으히들을아모르케나길오지만요만은 다 훈히 칠남매가 다무스히별로병도업시 잘아서요 ⁵⁴⁾

칠 남매의 자녀를 키우기에 육아의 어려움을 잘 아는 그녀는 가정박람회를 통해서 가장 요긴하게 여긴 것은 '으히기르는 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밖의 설비들이 훌륭하기는 하나 그 일부에 대해서는 '필요치안어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다. 칠 남매의 자녀를 둔 그녀의 가정의 모습과 박람회에 전시된 4인 가족의 가정, 그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었음은 당연했으리라. 그런데 가정박람회의

51) 가정박람회에서 집과가정의모형을 재미있고 또한교훈덕으로 공중의면전에보일수가있게된 것은 ▲아조훌륭한일이올시다 가정박람회에 사라잇는듯한인형을 고옴게 비렬한 것은 다른바업으로 용이히 일으키지못할 감상을 보는사람의게주어 가장알기가쉬웁습니다(후략)(『매일신보』 1915년 9월 26일 3면)

가정박람회는 성공할충분한가치가가잇스니 이를관람하시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여러분은이로인하야 한집의가정을기량하였스면으히는더욱잘생육될것이오 남 주던지 녀 주던지 또 는국가이던지 그를짜다라리익되는일이만켓지요 그리기에 나 는이가정박람회는 다만 오락이나 취미를주는곳됨에 곳치지안코 국가덕가치가잇는 물건이라고 단정 하는 것이올시다(1915년 9월 26일 3면)

52) 『新文界』(1915년 9월) p.79

53) ▲特色잇는 五號館

가정박람회의대오호관에는특별히조선의 상류가정을 진열 하였는데 이간방에 방세간문방구를 앙그러지게버려뚝코 주인내외에 주녀남미잇는가정이라주인은안석에의지하야신문을보고아들은그압해서글을비으며웃간에서 부인은짜님을다리고 바느질을하는데 사람이모다산듯하고 세간도극히화려하야 아모자보던지 실로 화려한 상등의가정이라 구경오는남녀로쇼 그교묘한제작에 놀라지안이하며(후략) (1915년 9월 12일 3면)

54) 「好參考 들始見 하얏노라」『매일신보』9월 19일 3면

관람자들의 면면을 보면, 단체관람이 많았고⁵⁵⁾, 관람자 층은 다양했는데, 특히 부인, 여학생 등 여성들의 관심을 모았다⁵⁶⁾.

- 花의觀客 녀학생의관람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의 여학생 오십 여명 단체관람,
“이여러학생들은 상당한교육을받아 장 리량치현모로 가댁의주인이될사람들이라”(1915년 9월 18일 3면)
- 家庭博主人은婦人 이올시다/毎日非常 旺盛況 이올시다 볼것이만하가는가댁박람회 에 부인 과규슈가테일만호합니다(『매일신보』1915년 9월 15일 3면)

여학생을 가리켜 “량치현모”이자 “가댁의주인” 혹은 가정박람회의 주인은 “婦人”이라 한다. 이제 부인, 규슈, 여학생 등 조선의 여성들이 ‘가정’과 ‘가정박람회’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주인”으로 맞아 들여지고 있었다. 이제 조선의 여성들은 현실의 ‘가정’이 정치적 역사적 변화를 겪으면서 가정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중심’이 되어야 했다⁵⁷⁾.

1915년 조선의 가정박람회는 일본식 가정의 모습을 제시하고 조선식 가정을 ‘개량’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사였다. 전체 다섯 개의 전시관 중 네 개의 전시관은 ‘일본의 가정’을 모델로 한 것이었고 모형제작과 행사준비과정 역시 1915년 3월 도쿄 우에노에서 열린 가정박람회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일본은 메이지시대 이후 줄곧 박람회 개최에 관심을 보여왔는데 『오국박람회보고서』(1875년 박물관부 사노쓰네타미佐野常民1822~1902 정치가)에 의하면, 일본정부가 박람회라는 공간을 어떠한 의도 아래 다루었는지, 그것을 통해 민중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려고 했는지를 밝히고 있다⁵⁸⁾. 특히, 이 보고서에 의하면 박람회를 “안목을 통한 교육”과 “몸에 익혀 감화”하는 장으로서 주목했음을 알 수 있는데 ‘민중교화의 장치’로서 박람회의 역할에 강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전국각지에 크고 작은 박람회가 열리던 1910년대 이후 박람회의 주요테마는 메이지 전기와는 사뭇 달라졌다고 한다. 즉, ‘부인’이나 ‘어린이, 혹은 ‘가정에 초점을 맞춘 박람회가 이 무렵부터 속속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데로 역시 조선에서도 “가정”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이런 움직임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일본정부보다 오히려 백화점이나 전철, 신문사와 같은 민간기업이었다는 것이다⁵⁹⁾. 1910년대에 증대한 신문사 주최의 박람회 가운데 가장 빠른 행사로 1915년 도쿠토미 소호가 경영하는 국민신문사가 창간25주년을 기념해 우에노에서 개최한 가정박람회이다⁶⁰⁾. 1915년3월에 열린 우에노 가정박람회의 개최목적은 보면,

55) “가평의 관람단오백명” 『매일신보』1915년 9월 13일 3면

56)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여학생들이 가정박람회장을 돌아보는 모습이 사진으로 실려있다. 『매일신보』(1915년 9월 26일 3면) 그리고 매일신보 독자들에게는 ‘독자우대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한정된 기간 동안 무료입장을 허락했다.

57) “우리의가댁의중심(中心)되시는부인(夫人)소져(小姐)녀교스(女教師)” 『우리의가댁』(家庭)권두(卷頭)에쓴말

58) 박람회의 취지는 안목을 통한 교육으로 사람들이 지교기예(智巧技藝)를 개진시키는 것에 있다.(중략) 사람의 지혜를 열고, 공예를 촉진시키는데 가장 첩경이며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안목을 통한 교육에 있을 뿐이다”라고 하고 있다 『박물관 창립의 보고서』1875년

59) 요시미순야 『박람회 근대의 시선』p.146 ~p.176

60) 료토가정박람회 1922년, 1923년에 오카자키공원에서 개최, 20 만 명 이상의 입장객을 불러모았다.

문명의 진보에 따라, 사회의 변화에 맞춰, 가정의 실제생활에 관한 문제는 점차 복잡해진다. 어떤 집에 살아야할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또한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가정의 문제는 옛날과 마찬가지로 의식주의 문제가 중심이 되는 법인데, 신시대의 의식주와 구시대의 의식주는 서로 상이한 점이 있다. 시대에 적합한 가정 및 가정생활을 이론상으로는 설법하지않고 있는 그대로 실제 보여 주기 위해 가정박람회는 기획되었다. 가정이라는 말이 넓은 것처럼 가정박람회의 범위도 참으로 넓다. (『국민신문』1915년 3월 16일)

라고 하여, 이 내용은 경성일보, 매일신보 양 사 주최의 서울의 가정박람회가 밝힌 취지내용과 일치한다⁶¹⁾. 1915년 9월 서울에서 열린 가정박람회의 개최목적⁶²⁾역시, 가정생활을 “이론 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그 내용에 “가정의 취미 오락, “위생”, “교육”을 담고자 하였다. 다만, 조선박람회의 기획의도로서 일본과 조선의 “밀접한 관계”를 도모하는 것, “신문과 가정”의 밀접한 관계를 도모하는 기획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 글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가정박람회를 주도한 경성일보사와 매일신보사의 여성독자 확보라는 측면, 그리고 일본의 조선 식민지경영의 정치적인 목적이 부합되는 행사였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⁶³⁾.

가정박람회의 주최사인 매일신보의 보도기사는 “큰회장이완연히 한화락한가뎡을 일운듯하더라”(1915년 9월 13일 3면)라며 가정박람회장 전체가 “화락한가뎡”을 이룬 듯이 부드럽고 즐거운 분위기였음을 사중일관 강조한다. 박람회에 모여든 사람들이 마치 이 박람회의 주제인 “가정”을 이룬 가족들처럼 낯선 이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음을 주목한다면, ‘가정박람회를 통해 조선의 가정을 장악하고자 했던 정치적 의미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문과 연극이라는 대중적 미디어와 결합한 가정소설은 부부간의 사랑, 애정의 우월성, 정숙미 등 ‘가정’에 요구되는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가정소설

61) 吉原留吉 『京城案内』三秀舎 1915 p.287~p.289

62) 문명이 진보함에 따라 사회의 변천과 함께 가정의 실제 문제는 점차 복잡해지고 어떠한 집에 살 것인가, 어떠한 음식을 취할 것인가, 어떠한 의복을 걸칠 것인가, 가정의 문제는 옛날과 같은 의식주의 문제를 (중략) 가정생활을 이론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제로 제시하기 위하여 경성일보사의 가정박람회가 기획된 것이다. 따라서 가정이라는 말의 의미가 넓듯이 가정박람회의 범위도 또한 매우 넓고 단지 경제와 관련된 것만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가정의 취미, 오락에 관한 방면, 위생에 관한 방면, 교육에 관한 방면 역시 마찬가지로 가정박람회의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하겠다. 그러므로 경성일보의 가정박람회가 부인들에게만 흥미와 실익이 있는 박람회가 아니라 전반에 걸친 것으로 내지와 조선, 그리고 신문과 가정의 밀접한 관계를 도모하는 기획을 한 것은 가장 시세의 요구에 적합한 본사의 기획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吉原留吉 『京城案内』三秀舎 1915 p.287~p.289)

63) 비슷한 시기에 시정(施政)5주년 조선물산공진회가 조선총독부주최로 경복궁에서 열리고 이때 부인 박람회(부인의 날)가 3회 열렸다. 국내박람회 연보 p.319

에서 반복적으로 묘사된 구시대의 어머니와는 다른 ‘양처현모’라는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여성에게 부여된 새로운 이미지가 가정박람회를 통해서 생생하게 제시되었다. 박람회는 새로운 가정생활의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새로운 소비생활의 이미지를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는 권위적인 장치로서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에 대중들에게 펼쳐진 것이다.

가정소설, 가정극, 가정박람회 결국 여성들의 일상의식 속에서 이들을 통한 체험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문화통합이라는 거대 담론이 녹아들어 있었고, 특히 ‘가정’이라는 신발명품은 신문, 극장 박람회라는 권위적인 장치를 통해서 ‘근대’의 생활규범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수단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문화코드를 가져다준 가정소설도 금방 새로운 구조로 탈바꿈한 것은 아니었다. 가정소설을 표방하는 이들 소설들의 서사구조, 소재 등은 전통적이며 통속적이었다. 그 예로, 번안소설 『재봉춘』 『두견성』 등은 모두 고부간의 갈등, 신분의 차이를 넘은 결혼담 등을 주요 축으로 하며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가정소설과 가정극(신파극), 가정박람회는 식민지적 문화지형이 낳은 정치적 시선 아래에 낯선 사람들을 이어주었고 그들을 통합시키고자 하였다. 박람회는 ‘문명’을 구체적인 상으로 가르치는 전시장이며 연극장은 ‘대중교화’(『설중매』)의 교육장이었다

【參考文獻】

- 김우진(金字鎭)(1912) 『유화우(榴花雨)』상하권 동양서원
- 로카(1900) 『호토토기즈』 민유사(民友社)
- 무타 가즈에(2002) 「가족·성과 여성의 양의성」
『동아시아 근대성과 성의 정치학』한국여성연구원 편, 푸른사상: p.127 ~p.143
- 선우일(鮮宇日)(1912) 『두견성(杜鵑聲)』경정보급서관(京城普及書館) 상하권
- 요시미슌야 『박람회 근대의 시선』p.146~p.176
- 加藤武雄(1934) 「家庭小説研究」『日本文學講座第一四卷』
- 金子明雄(1997) 「『家庭小説』と讀むことの帝國」(『メディア・表象・イデオロギー—明治三〇年代の文化研究』、小澤書店) p.131~p.157
- 眞銅正宏(2000) 「家庭小説というジャンル—菊地幽芳『己が罪』『ベストセラーのゆくえ』翰林書房、p.115~116
- 中村雄二郎(2000) 『共通感覺論』岩波書店
- 吉原留吉(1915) 『京城案内』三秀舎 p.287 ~p.289

1910年代の植民地朝鮮において社會文化的な關心が集まったものは、「家庭」であった。本稿は、この<家庭>をめぐる新聞、劇場、博覽會のような空間が、讀者、觀客に日常的な身体感覺を刺激しながら提供しようとした均質の感覺と、その形成過程に注目したものである。1910年代を前後にして日本文學のなかのいわゆる家庭小説の翻案が著しく現れはじめ、家庭小説は新聞に連載され、また劇場では家庭劇が公演される一方、新聞社は家庭博覽會を主催するなど、<家庭>というものは新しい文化コードとして当時の韓國に氾濫することとなった。そして新聞、劇場、博覽會といった近代的装置がはたらきかけようとした對象は、いままで社會の周辺部にいた女性讀者や女性觀客であった。

明治30年代前後から日本の「通俗」文學を支えてきたいわゆる家庭小説が1910年代の韓國に移入される時に、そこには新聞ジャーナリズムが深くかかわっていた。当時の『毎日申報』紙面において連載小説欄はハングル専用にしていたし、それは新たに登場した<識者>すなわち、読み書きのできる女性讀者のために開拓した分野である。

家庭をめぐるさまざまな問題をモチーフにし、たとえば<金>と<愛>の問題(『金色夜叉』と翻案『長恨夢』)、<孝>と<夫婦愛>との葛藤(『不如歸』と翻案『杜鵑聲』)、女性の獻身と犠牲に支えられた家族(『己が罪』と翻案『双玉涙』)など、家庭小説は健全な道徳と「光明」の結末をその特徴としながら多數の讀者の支持を得た。さらに新聞や演劇のようなメディア・ミックスによって<家庭>という新概念を一般家庭に浸透させ、そのもっとも効果的機能を果たしたのが、家庭小説である。もはや旧時代の母とは異なった「良妻賢母」という新しいイメージの女性像が、家庭小説や家庭劇のなかに登場し、また新しい家庭生活のモデルが提示された家庭博覽會にかけつけた觀覽客は、そこで「家庭」を体験することができた。

結局、1910年代の韓國における家庭小説、家庭劇、家庭博覽會というのは、女性たちの日常世界のなかに「家庭」という近代的空間を体験させるものであり、「家庭」という發明品は新聞、劇場、博覽會のような權威的な装置のなかに陳列され、均質の規範と意識を与えるものであった。そしてそこには植民地朝鮮の女性たちに向けられた「國民」化という、大きな物語が潜んでいたことはいままでもないだろう。

キーワード：家庭、家庭小説、家庭劇、家庭博覽會、共通感覺、翻案

투 고 : 2004. 5. 31
1차 심사: 2004. 6. 12
2차 심사: 2004. 7. 3

住 所 : 대전시 서구 월평동 주공아파트 2단지 202-802
電 話 : 019-387-9996
E-mail : hong323@hanmail.net

K C I